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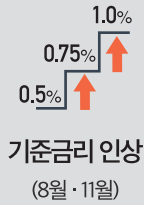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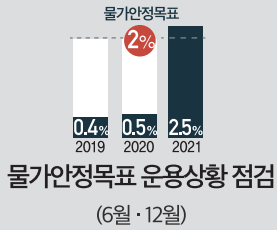
# II

## 업무 현황

1. 중기전략	27
2. 통화신용정책	28
3. 금융안정	36
4. 발권	45
5. 지급결제	50
6. 외환 및 국제협력	56
7. 조사통계	66
8. 국고 및 증권	74
9. 대외 커뮤니케이션	79

# 2021 한국은행

## 통화신용정책 수행



## 금융안정 책무 수행 및 장기 정책 이슈 대비

금융안정 상황 점검 강화  
금융안정점검회의 개최  
금융안정보고서 발간

외환시장 안정  
미 연준과 FIMA Repo Facility 이용 합의  
한·미 통화스왑(600억 달러)  
연장(6월) 및 종료(12월)

비상대응체제 가동  
미 연준 통화정책정상화 추진,  
중국 헝다그룹 채무불이행 사태 등에  
대비하여 통화금융대책반회의 등 개최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와 한국은행의 대응방향」 수립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 강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 진행, 글로벌 논의 동향  
및 법적 이슈 조사 등

## 조사연구 및 대내외 교류협력 강화

우리 경제의 주요 현안 분석  
코로나19 확산의 영향 및 위기 이후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조사연구 수행

대국민 비대면 소통 활성화  
소셜미디어 활성화  
온라인 화폐 박물관 개설

BIS 이사국 활동 등  
글로벌 정책공조 논의 적극 참여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주관 등

## 7. 조사통계

### 가. 조사연구

한국은행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 수립과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각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사연구의 범위는 국제경제, 성장, 물가, 고용 등 국내외 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며, 조사연구 결과는 각종 보고서 및 책자로 발간되고 있다<sup>119)</sup>.

#### (1) 본부의 조사연구

##### 우리 경제의 주요 현안 분석

2021년 중 경제 현안 관련 조사연구는 코로나19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회복과정에서 나타나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우선 감염병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백신보급 확대<sup>120)</sup>와 감염병과의 공존 정책<sup>121)</sup>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제원자재가격의 급등 배경을 살펴보고 상승사이클로의 진입 가능성을 평가한 후 국내경제에 미칠 파급영향을 가늠해보았다<sup>122)</sup>. 아울러 글로벌 공급 병목현상(bottlenecks)의 현황과 파급영향을 반도체, 해상물류, 노동시장 등 공급차질이 두드러진 세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sup>123)</sup>.

또한 코로나19 확산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점검하였다. 먼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역조치와 경제 간의 상충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sup>124)</sup>. 또한 감염병 위기가 소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향후 pent-up 소비가 되 살아날 가능성을 살펴보았다<sup>125)</sup>.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수요변화, 반도체 경기 등을 점검하여 수출물량의 추세와 단기 여건을 평가하였다<sup>126)</sup>.

코로나19 확산은 고용상황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감안하여 고용부문 현안도 비중있게 분석하였다. 우선 감염병 확산에 따른 고용상황 악화가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층 예비 취업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sup>127)</sup>. 또한 코로나19 충격이 집중되었던 자영업 부분의 고용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자영업 고용부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점검해보았다<sup>128)</sup>.

코로나19 이후 인플레이션이 낮아졌다가 2021년 들어 크게 높아진 점을 고려하여 물가에 대한 분석도 강화하였다. 먼저 물가상승률이 크게 높아진 배경과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통화적 관점과 수요 및 기대인플레이션 관점에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점검하였다<sup>129)</sup>. 또한 농축산물 및 석유류 가격, 관리물가 등 여러 교란요인의 영향을 제외한 기초적 물가흐름을 살펴보았다<sup>130)</sup>. 아울러 팬데믹 위기로부터의 회복과정

119) 이후 각주를 통해 소개되는 보고서 및 책자들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의 '조사·연구' 항목에서 검색할 수 있다.

120) 코로나19 백신보급과 글로벌 경기회복 향방(경제전망보고서, 2021년 2월)

121) 주요 선진국 워드코로나 정책 추진 현황 및 경제적 영향(국제경제리뷰, 2021년 10월)

122) 국제원자재가격 상승배경 및 국내경제에 대한 파급영향 점검(BOK 이슈노트, 2021년 6월)

123) 최근 글로벌 공급 병목현상의 현황 및 평가(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21년 9월)

124) 감염병 위기에 따른 방역조치와 경제적 비용 간 관계(조사통계월보, 2021년 3월)

125) 향후 pent-up 소비 가능성 점검(BOK 이슈노트, 2021년 4월)

126) 품목별 수출 물량의 추세 및 단기 여건 점검(경제전망보고서, 2021년 11월)

127) 고용상황 악화가 신규 대졸자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BOK 이슈노트, 2021년 3월)

128) 코로나19 이후 자영업 특성별 고용현황 및 평가(BOK 이슈노트, 2021년 6월)

129) 최근 인플레이션 논쟁의 이론적 배경과 우리경제 내 현실화 가능성 점검(BOK 이슈노트, 2021년 7월)

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급병목이 우리나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sup>131)</sup>.

한편 코로나19 위기 이후 경제환경 변화의 영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감염병 충격으로 인한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재추정하고 정책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sup>132)</sup>. 또한 팬데믹을 계기로 비대면 경제활동이 늘어나는 등 디지털 경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디지털 전환이 생산성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sup>133)</sup>. 아울러 팬데믹 이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후변화 대응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sup>134)</sup>과 주요국의 탄소국경세 도입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sup>135)</sup>.

아울러 코로나19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경제구조 변화의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가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sup>136)</sup>. 또한 2000년부터 이어진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기조의 구조적 요인을 분석한 후 중장기 시계에서 향후 경상수지 추이를 전망하였다<sup>137)</sup>.

## 경제연구원 조사연구 강화

경제연구원에서는 중장기 조사연구와 더불어 국내외 경제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도 활발하게 수행하였다.

통화정책<sup>138)</sup>, 노동시장<sup>139)</sup> 등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한편, 생산성 둔화<sup>140)</sup> 및 국제통상여건 변화<sup>141)</sup> 등 우리 경제의 당면한 구조적 이슈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수행함으로써 중장기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참고자료를 제공하였다. 이와 함께 학술·이론적인 분야에 대한 연구결과<sup>142)</sup>도 꾸준히 발표하였으며 북한경제<sup>143)</sup>에 대한 연구도 지속하였다.

130) 기초적 물가지표 점검(BOK 이슈노트, 2021년 8월)

131) 공급병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BOK 이슈노트, 2021년 11월)

132) 코로나19를 감안한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 재추정(BOK 이슈노트, 2021년 9월)

133) 디지털 전환이 생산성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국제경제리뷰, 2021년 6월)

134) 기후변화 대응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BOK 이슈노트, 2021년 9월)

135) 주요국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탄소국경세를 중심으로(조사통계월보, 2021년 7월)

136)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조정 실업률 추정(조사통계월보, 2021년 8월)

137)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요인 분석(조사통계월보, 2021년 11월)

138) The Effects of Monetary Policy on Consumption: Workers vs Retirees(BOK경제연구, 2021년 2월), A Parametric Estimation of the Policy Stance from the Central Bank Minutes(BOK경제연구, 2021년 10월), Monetary Non-Neutrality in a Multisector Economy: The Role of Risk-Sharing(BOK경제연구, 2021년 11월), International Transmission of Chinese Monetary Policy Shocks to Asian Countries(BOK경제연구, 2021년 11월)

139) 직업훈련이 외국인력의 고용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경제분석, 2021년 6월), The Immigrant Wage Gap and Assimilation in Korea(BOK경제연구, 2021년 10월), 전공 불일치가 불황기 대출 취업자의 임금에 미치는 장기 효과 분석(BOK경제연구, 2021년 12월), The Impact of Robots on Labor Demand: Evidence from Job Vacancy Data for South Korea(BOK경제연구, 2021년 12월)

140) 우리나라의 생산성 둔화요인과 개선방안(BOK이슈노트, 2021년 3월), 디지털 혁신과 우리나라의 생산성 역설(BOK이슈노트, 2021년 8월)

141) 우리 수출의 글로벌 소득탄력성 하락 요인 분석(BOK경제연구, 2021년 8월), Upstream Propagation of the U.S.-China Trade War(BOK경제연구, 2021년 12월)

142) 한국의 화폐환상에 관한 연구(BOK경제연구, 2021년 6월), Distribution-Dependent Value of Money: A Coalition-Proof Approach to Monetary Equilibrium(BOK경제연구, 2021년 9월)

143) 북한지역 토지자산 추정에 관한 연구: 프레임워크 개발 및 탐색적 적용(경제분석, 2021년 6월), 북한의 경제체제에 관한 연구: 실태와 평가(BOK경제연구, 2021년 8월), 김정은 시대 북한의 금융제도 변화 - 북한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경제분석, 2021년 12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비대면 화상회의를 활용하여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7월에는 「2021 Annual Meeting of the CEBRA」, 8월에는 「2021 Annual International Journal of Central Banking Research Conference」를 개최하고 10월에는 「2021 FMA Annual Meeting」 KAFA 세션을 한미재무학회와 공동 주최하였다. 이를 통해 최신 경제이론에 대한 수준 높은 강연 및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대내외 연구기관과 교류함으로써 한국은행의 조사연구 역량 강화를 도모하였다. 12월에는 「한·일 중앙은행 공동 리서치 워크숍<sup>144)</sup>」을 개최하여 다양한 연구 주제에 대해 서로 발표하고 토론함으로써 양국 중앙은행의 연구성과와 지식을 공유하였다.

이와 함께 국내외 석학들과 통화정책 및 금융안정, 거시건전성 등에 관한 공동연구도 활발히 수행하였다. 이러한 공동연구를 통해 국내외 경제현안에 대한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였다.

**부서 간 협업연구 강화**

새로운 금융경제 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업무 수행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외부연구용역 및 부서간 협업연구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였다. 연중 총 4차례의 「조사연구위원회<sup>145)</sup>」를 개최하여 한국은행의 전반적인 연구업무를 조율하였으며, 외부연구용역, 국내외 공동연구 및 부서 간 협업연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중점 연구주제를 적극 발굴하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정책여건 하에서 시급한 정책현안 연구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구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정책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조사연구 자료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부서 간 협업 연구를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2) 지역본부의 조사연구**

지역본부는 본부의 통화신용정책 수립 및 금융안정 기능의 효과적 수행과 지역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지역 금융·경제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지역경제 관련 각종 통계 편제, 주요 현안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유관기관, 대학,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지역 내 현안사항에 대한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정책과제 발굴이나 방안 수립에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2021년 10월에는 각 지역본부에서 코로나19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을 생산, 소비, 고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 조사·분석한 주요 보고서를 모아 「지역경제와 코로나19」 책자를 발간하였다.

**지역경제 동향 모니터링 강화**

지역본부는 지역 업체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역경제에 대해 심층 모니터링을 실시하

144) 2017년부터 일본은행 금융연구소와의 공동 리서치 워크숍을 매년 번갈아 주관하여 개최하고 있다.

145) 위원장(경제연구원 담당 부총재보) 5인의 위원(부총재보, 경제연구원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 이를 종합 분석한 「지역경제보고서」를 매분기 발간하여, 지역경제 동향 파악 및 본부의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한 주요자료로 제공하였다. 아울러 7대 주력 제조업(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철강·디스플레이·조선·휴대폰)에 대해서는 정기 또는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유관부서에 전달하여 정책수립에 기여하였으며, 여타 지역경제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 및 모니터링 결과도 이슈모니터링 및 현장리포트로 작성하여 「지역경제보고서」를 통해 지역사회에 제공하였다.

또한 기업경기조사, 소비자동향조사,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 기업경영분석 등 지역경제의 동향 파악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에 필요한 각종 통계를 정기적으로 편제하여 제공하였다.

### 지역경제의 주요 현안 분석

지역본부는 지역 내 현안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연구를 통해 지역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지역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여 지역 내 씽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2021년에는 각 지역본부가 코로나19 확산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자료와 함께 바이오산업, 자동차부품산업, 이차전지산업 및 지식산업 등 지역 내 신성장동력에 대한 심층분석자료도 다수 작성하여 지역사회에 제공하였다<sup>146)</sup>.

또한 지역 내 다양한 연구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 공동으로 서울-인천-경기-

강원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성장을 위한 가치사슬 구조 분석, 외부 위기 충격이 제주도 관광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 강원도 경제성장요인 분해를 통한 성장방안 연구, 전라북도 스마트물류산업 발전전략 연구, 부산지역 가계부채 미시구조 분석, 대구경북지역 친환경 경제전환 추진방향과 과제 등에 대한 연구보고서 등을 작성<sup>147)</sup>하여 관련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제공하였다.

### 지역사회와의 연구교류 강화

지역본부는 코로나19 지속으로 대면 접촉이 제약되는 상황에서도 다양한 비대면 소통 수단 등을 활용하여 지역 유관기관, 대학, 지방자치단체 등과 활발히 교류하였다.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 따른 원격 근무 및 교육 등 비대면 활동이 정착되는 가운데 지역본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역발전 방안, 신성장동력 산업의 발굴 및 육성 방안, 친환경 경제전환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sup>148)</sup>하여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정책 마련에 기여하였다. 또한 핀테크가 지역금융에 미치는 영향, 지역 내 산업 현황 및 발전방안,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 등 지역경제 현안 파악 및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포럼을 개최<sup>149)</sup>하여 지역사회와 관련된 주제에 대한 인식의 공유 및 소통 강화의 장으로 활용하였다.

아울러 지역경제 동향 관련 정책 참고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 주관 회의 등에 적

146) 2021년 중 총 123건의 자체 조사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 중 8건은 지역본부 공동으로 진행되었다.

147) 2021년 중 총 26건의 외부 전문가와의 공동 연구용역 사업을 수행하였다.

148) 2021년 중 총 12회의 지역경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149) 2021년 중 총 37회의 지역경제포럼을 개최하였다.

기에 제공하여 대응방안 수립에 기여하였다.

한편 지역본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나 지역단위 행정·경제중심지로서 조사연구·모니터링·교류협력 등을 특별히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담당제<sup>150)</sup>를 운영함으로써 맞춤형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3) 국외사무소의 조사연구

국외사무소는 관할지역 경제에 대한 조사연구 및 동향분석<sup>151)</sup>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주재국 중앙은행·국제기구 주요 인사 및 금융·경제 전문가와의 면담 등을 통해 파악한 현지정보<sup>152)</sup>를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2021년에는 코로나19 확산뿐 아니라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금융·경제 주요 이슈와 관련하여 각국 중앙은행 및 정부의 다양한 정책대응을 면밀히 파악한 분석 자료를 작성하였다.

아울러 대면 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웹 세미나 개최 및 참여, 화상회의 등을 통해 현지 네트워크를 유지·확충하였고 주요 이슈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 나. 통계

한국은행은 국가통계 작성기관으로서 통화·유동성, 예금·대출 금리, 가계신용 등 통화금융 통계 외에도 국민소득(GDP), 산업연관표, 국민대차대조표,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및 국제투

자대조표 등 국민계정통계와 함께 생산자물가, 수출입물가, 기업경영분석, 기업경기(BSI) 및 소비자동향(CSI) 조사 등 18종의 국가승인통계를 편제하고 있다<sup>153)</sup>.

2021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초자료 수집, 편제인력 관리 등에서 애로가 지속되었으나 원만한 대응으로 공표일정을 차질없이 준수하고 통계의 정확도를 유지하였다. 다양한 사회 및 경제적 현상을 통계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기존 통계를 확충하는 동시에 신규 통계 개발도 추진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에 의해 제약된 여건 하에서도 국제기구, 학계, 정부 등과의 통계협력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적극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대국민 통계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경제통계시스템(ECOS)의 전면 재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150) 2021년 말 현재 12개 지역본부가 15개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151) 2021년 중 총 100개의 조사연구 및 동향분석 자료를 작성하였다.

152) 2021년 중 총 402개의 현지정보를 작성하였다.

153)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https://ecos.bok.or.kr>)

표 II - 26. 한국은행 작성 국가승인통계 현황

부문	종류
국민계정	국민소득, 국제수지표,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민대차대조표 <sup>1)</sup> , 국제투자대조표, 대외채권·채무
통화금융	통화금융통계
가계부문, 미시통계	가계금융·복지조사 <sup>2)</sup>
물가지수	생산자물가(PPI), 수출입물가(EPI, IPI)
기업통계	기업경영분석
경제심리	기업경기조사(BSI), 소비자동향조사(CSI), 경제심리지수(ESI)
금융안정	금융기관대출행태조사
지급결제	지급결제통계
기타	전국민금융이해력조사 <sup>3)</sup>

주: 1) 통계청과 공동

2) 통계청·금융감독원과 공동

3) 금융감독원과 공동

자료: 한국은행

## 통계 개선 및 확충

한국은행은 산업구조의 변화, 생산기술의 발전, 디지털 환경 가속화 등 최근 경제 및 사회적 현상을 통계에 충실히 반영하고자 속도성 지표를 개발하고 기존 통계의 작성범위 확대 및 표본 개편 등을 실시하였다.

증가하는 속도성 통계 수요에 대응하여 매 주 뉴스심리지수, 실시간 통합경기지표, 경제불확실성지수 등을 작성하였으며 신용카드, 스캐너 데이터 등을 활용한 소비 및 가격지표 개발을 추진하였다. 특히 뉴스심리지수는 시험공개 기간 검증을 거쳐 2022년 2월에 실험적 통계로 공개되었다.

기업경영분석은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작성 지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기업대출 및 중견기

업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수요에 부응하였다. 기업경기조사(BSI)는 현실 반영도 제고를 위하여 지역본부 조사표본 개편을 실시하였다. 또한 2015-2010년 접속투입산출표를 작성하여 각 기준년 간 시계열 비교를 가능하게 하였다. 국민계정 통계의 경우 2020 기준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적 통계 확충 노력의 일환으로 G20, IMF 등이 주도하는 DGI-2(Data Gaps Initiative)<sup>154)</sup>의 권고안을 반영하기 위해 분기 제도부문별 생산 및 소득 계정, 상세채권통계(Securities Statistics), 상세자금순환표(From-whom-to-whom Tables), 해외증권투자통계(Coordinated Portfolio Investment Survey)의 작성을 추진하였다. 한국은행은 새롭게 출범하는 New DGI 사업에 대해서도 성공적 이행을 위하여 협조할 계획이다.

## 국내외 통계협력 강화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지속으로 기존의 대면 방식으로 통계협력을 추진하기 어려운 여건하에 비대면 협력 강화를 통해 학계 및 유관기관과 소통하였다.

먼저 한국통계학회 50주년 및 한국은행 71주년 기념 「한국통계학회-한국은행 공동포럼(2021년 11월)」을 온·오프라인 병행방식으로 개최하였다. 동 포럼에서는 학계 및 유관기관 통계전문가 130여명이 참가하여 「데이터로 말한다:과거에서 미래까지」라는 주제로 데이터의 진화에 따른 통계적 분석기법의 변화를 살펴보고 경제통계의 발전과 도전 과제 및 데이터 형

154) 2009년 G20 회의(런던)에서 시작된 국제 통계 개발·개선 사업으로 IMF와 FSB 주도 하에 주요 국제기구(BIS, ECB 등) 및 G20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단계 사업(CDS, 구조화사업, 비은행금융기관 대외익스포저)을 완료(DGI-1)한 후, 2016년부터 2021년까지 2단계 사업(파생상품, 대외직접투자, 통계공유 등)을 진행하였다.



분석의 다양성에 대한 도전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아울러 비대면 통계협력협의회 개최 등을 통하여 통계청과 협력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주요 국제기구 등이 개최한 컨퍼런스 및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새로운 국제통계기준의 성공적인 적용·이행과 관련된 각종 현안을 논의하였다.

## 통계서비스 향상

한국은행은 대학교,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경제통계지표 해설 강좌」를 연 75회 개최하여 경제통계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였다. 동 강좌는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대응 방안에 따라 온라인 방식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실시되었다.

또한 경제통계시스템(ECOS) 이메일 문의 기능 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 향상을 도모하였다. 한편 신경계통계시스템 구축 사업의 진행에 따라 통계작성 기반 구조인 공통플랫폼과 일부 통계업무를 대상으로 1차 가동을 실시하였다. 통계편제의 생산성 제고와 대 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신경계통계시스템의 전면적인 구축 작업은 통계편제 업무와 외부 이용자 포털 등을 포함해 2022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이다.

그림 II - 22. 한국은행 통계포럼 (2021년 11월 4일)



자료: 한국은행(<http://youtu.be/5K9SHdWWaDw>)

## QR BOX



### QR 1

조사연구 홈페이지



### QR 2

ECOS 홈페이지



### QR 3

한국은행 통계포럼